



‘고점 경고’ 무색...광주 집값 상승폭 확대

8월 5주 광주 아파트값 0.24% 상승...최근 6주간 0.21~0.22% ↑ 남구 0.27%·광산 0.26%...준신축·지하철 개발 기대에 가격 상승 7월 기준 3.3㎡당 1416만원...새 아파트값 상승에 분양가도 ‘경중’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가 무색하게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분양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이 0.31% 올라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2% 오르면서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광주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0.21%)에 비해 0.24%로 0.03%포인트 오르며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다. 광주는 최근 6주간 매주 0.21%에서 0.22% 상승률을 보여왔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남구는 전주(0.21%)에서 0.27%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동구도 0.03%에서 0.12%, 서구는 0.19%에서 0.23%로 한 주 만에 각각 0.09%, 0.04%씩 올랐다. 광산(0.25%→0.26%)과 북구(0.24%→0.2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학군 수요가 있는 남구 봉선동을 비롯해 인근 행암동과 진월동에 소재한 10년 이내 준신축 단지 위주로 남구의 집값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는 수완지구 일대 도시철도2호선 개발호재가 기대되는 단지,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1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투자수요와 함께 첨단2지구, 신

용동 일대 강변 아파트를 위주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지역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의 ㎡당 평균 분양가는 429만2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4만5000원에 비해 11.63%(44만7000원) 오른 것이다. 이를 1평(3.3㎡)당으로 다시 계산하면 평당 분양가는 1416만3000원인 셈이다. 30평 아파트 분양가가 4억249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광주의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5월 1397만8800원을

기록한 이후 1400만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신축 아파트 값은 애초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진다는 점이다. 30평대 분양가가 5억원대로 책정되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리 높다고 여기지 않게 되면서, 분양가는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광주 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근 재개발 지역 한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25평대 분양가가 3억원인데 벌써 2억원이 오른데다 이마저도 구매하려고 해도 팔지 않는 실정”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면 완공 후 신축아파트 값은 더 크게 오르고,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차박’은 이렇게...롯데아웃렛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점포 1층에 마련된 캠핑용품 전시공간 ‘드리밍 캠핑존’에서 ‘차박’ 예시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상의,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 지원 나선다

지역 유망기업 10곳과 협약 체결

광주상공회의소는 대웅에스엔티와 해양에너지 등 지역 유망기업 10개사와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1년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유망기업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신기술 도입 희망분야에 대한 전문가 집중 기업지원을 통해 신사업 도입, 신제품 개발지원, 신기술 융복합, 공정개선, 기술예로해소 지원, 연구개발(R&D) 제안서 작성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상의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협약체결 10개 기업에 협약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기업의 매출급감,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번 협약 및 사업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기술 수요에 지역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광주상의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전문가들의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협약기업들이 주력제품에 미래 핵심기술을 융복합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도사업 우수사무소 시상...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운데)가 2일 ‘2021년 상반기 농·축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각각 1위, 3위를 차지한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왼쪽)과 곡성농협(조합장 주성재)를 시상하고 있다. 이들 조합은 전국 1107개 농·축협 가운데 농업인 영농지원사업 40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 농협 금요장터 오늘 다시 문 연다

15~16일 추석맞이 할인전

무더위를 피해 한 달 가량 쉬었던 ‘광주 농협 금요장터’가 3일 다시 문을 연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1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광주본부 관계자와 광주지역 15개 농·축협 판매사업 실무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올 하반기 직거래 개장 일정과 추석명절 선물용 농축산물 상품 및 단가, 직거래 활성화 방

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석예 앞두고는 오는 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추석맞이 큰 장터’도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2012년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맺은 뒤 지속되고 있다. 15~16일 이틀 동안 광주본부 주차장에서는 ‘추석 명절맞이 특별장터’가 진행된다. 명절맞이 장터에서는 15개 농·축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50여 개 우수 농·축산물과 명절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이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선보여진다. 농협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풍성한 사은행사도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5천만원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중**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